

도시혁신연구회 홍제1동 희망지사업 주민간담회 개요 및 회의록

- 일 시 : 2019. 7. 19.(금) 15:00~17:00
- 장 소 : 재미진 홍제쉼터(서대문구 홍제내길 102)
- 참 석 자 : 도시혁신연구회 소속 구의원(차승연,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의원), 홍제 1동 2018희망지사업 참여주민, 지원단체 관계자, 공간운영활동가, 서대문구청 환경 도시국장, 희망지사업 추진부서(도시관리과) 공무원
- 진행순서
 1. 참석자 소개 : 각자
 2. 간담회 개최취지 설명 : 도시혁신연구회 대표 차승연 의원
 3. 홍제1동 희망지사업 경과 보고 : 주민대표
 4. 자유토론
- 간담회 내용(회의록)
 - ▶ 주민대표 : 홍제1동 희망지사업은 2018년 지원단체가 변경되었고 현재는 원활하게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구청 담당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어 8월이 사업종료인데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수한 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동안 변동되지 않았으면 함
→ 구청 관계자 : 새로운 사업담당직원이 신속하게 업무파악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 지원단체 : 사업구역 내 골목길은 차가 왕복으로 다니는데 보도가 없어 매우 위험한 상황임. 지역의제 조사결과 골목이 좁고 주차장이 부족, 문화시설 부족, 소공원 공용주차장을 활용한 사업 과제 발굴 필요하다고 봄.
홍제동 희망마켓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어 뛰어놀 수 있었음. 동네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됨. 8월초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이 공고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 구의원 : 사업구역 내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는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지원단체 : 여러 곳을 확인하였으나 적당한 곳은 거의 없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 정도임

▶ 주민 : 동네에서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좋겠음. 이 동네에 산지 8년 정도 지났지만 이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활력을 잃은 동네로 생각했음. 아이들이 놀 곳이 없고, 주부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카페를 이용함. 사회적 경제방식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 좋겠음.

▶ 지원단체 : 각종 소규모 동아리활동을 통해 이 마을이 활력을 찾고 있음. 2019년에는 동아리가 7~8개로 늘어났으며, 매월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음. 신연중학교 주변 골목길이 좁아 등하교길이 위험했는데, 화분을 놓고 식물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등하교길에 물을 주고 함께 관리하면서 주민만족도가 높아졌음.

▶ 구의원 : 사업평가 시 지적된 부분이 무엇인지? 주민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희망지사업의 컨셉을 정하고 특성화하는 것이 활성화사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으로 보임

▶ 구의원 : 적극적인 주민역량이 장점으로 보임. 보도와 주차문제는 구청 부서에서 협조해 주길 바람

▶ 지원단체 : 활성화사업 공모에 참여할 때 공동체부분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홍제1동은 이미 그 부분에서는 강화되어 있다고 봄. 향후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경쟁에 의한 활성화가 아니라 예산을 많은 지역에 나눠서 사업을 추진 하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봄

▶ 활동가 : 3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2019년 예산은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활동가 지원비, 공간임차료는 구 예산으로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음. 사업종료와 동시에 거점이 없어지면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움. 중랑구에서는 희망지사업을 준비하면서 구청에서 폐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이 원활 해지기도 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출한 사례도 있다고 함.

▶ 주민 : 송죽원 뒷길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높은 담벼락과 좁은 골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점으로 인해 차량이 일방통행 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선적으로 안전 거울, 소화기가 설치되었으면 좋겠고, 소방교육도 병행했으면 함.

▶ 지원단체 : 다음 사업선정 여부와 별개로 조직된 주민역량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가도록 서대문구 차원에서 작은 주민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 필요하다고 봄

▶ 구의원 : 마을축제에서 세대가 공존하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함. 등하교길에 소공원 물주는 아이들을 칭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 구의원 : 꽃밭조성사업은 주민이 모이고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는 좋은 사업내용인 것 같음. 구의회에서도 관심가지고 협조하겠음. 마을공동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주거지재생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봄.

○ 행사사진

